碩士學位論文
指導敎授 한영숙

패션트랜드와 헤어스타일 變化의 相關性 硏究

- 1920年代 以後 패션과 헤어 컷을 中心으로 -

Relationship study on the Changes of Hairstyle reflected in the Fashion Trends

2002年 12월 일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任 錫 鍾

碩士學位論文
指導敎授 한영숙

패션트랜드와 헤어스타일 變化의 相關性 硏究

- 1920年代 以後 패션과 헤어 컷을 中心으로 -

Relationship study on the Changes of Hairstyle reflected in the Fashion Trends

위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12월 일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任 錫 鍾

임석종의 예술학석사학위논문을 인정함

2002년 12월

심사위원장 金三鎭 (인)

심사위원 한영숙 (인)

심사위원 강병재 (인)

목 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7
2. 연구의 방법과 제한 8
3. 연구방법 8

Ⅱ 본론

1. 패션의 역사적 고찰
   A. 근세
      - 17세기 바로크시대 9
      - 18세기 로코코시대 10
   B. 근대
      - 19세기 신고전주의 11
      - 19세기 낭만주의 12
      - 19세기 신로코코주의(크리놀린시대) 12
      - 19세기 말 13
   C. Haute Couture & Prêt-a-Porter 14
   D. Street Fashion 18

2. 헤어스타일의 역사적 고찰
   A. Setting Hair
      - 17세기 바로크시대 20
      - 18세기 로코코시대 20
      - 근대 21
      - 1910년대 이후 21
   B. Cutting Hair
      - 1920년대 22
      - 1930년대 22
      - 1940년대 22
      - 1950년대 22
      - 1960년대 22
      - 1970년대 23
      - 1980년대 23
      - 1990년대 23

3. 스타일을 구성하는 조형적 요소 고찰 24

4. 20세기 패션의 실루엣 고찰
- 1900년대 ~ 1910년대 27
- 1920년대 28
- 1930년대 29
- 1940년대 ~ 1950년대 30
- 1960년대 31
- 1970년대 32
- 1980년대 33
- 1990년대 ~ 2000년대 34
5. 20세기 헤어컷 기법의 종류
A. 원렝스 35
B. 그레주에이션 36
C. 레이어 37
6. 20세기 Decade별 헤어스타일 고찰
- 1910년대 38
- 1920년대 38
- 1930년대 39
- 1940년대 40
- 1950년대 41
- 1960년대 42
- 1970년대 43
- 1980년대 44
- 1990년대 45
- 2000년대 46
7. 20세기 Decade별 대표적 헤어컷 고찰
- 1920년대 47
- 1930년대 48
- 1940년대 49
- 1950년대 50
- 1960년대 51
- 1970년대 52
- 1980년대 53
- 1990년대 54
- 2000년대 55
Ⅲ. 결론
* 실루엣 내에서의 상관성 규명 56
* 참고문헌 62
* Pictures Reference 63
* ABSTRCT 67

그림목차

그림1 더치 스타일, 바로크시대 9
그림2 프렌치스타일, 바로크시대 9
그림3 프렌치스타일, 로코코시대 10
그림4 폴랜드스타일, 로코코시대 10
그림5 슈미즈스타일, 신고전주의 11
그림6 엠파이어스타일, 신고전주의 11
그림7 낭만주의스타일, 낭만주의 12
그림8 크리놀린스타일, 신로코코시대 12
그림9 버슬스타일, 19세기말 13
그림10 프린세스스타일, 19세기말 13
그림11 히피스타일, 1960년대 19
그림12 그리저, 1960년대 19
그림13 핫팬츠, 1970년대 19
그림14 글램, 1970년대 19
그림15 투톤, 1980년대 19
그림16 헤비메탈, 1980년대 19
그림17 네오모드, 1990년대 19
그림18 그런지, 1990년대 19
그림19 실루엣의 단순화와 반복, 20세기 26
그림20 버슬, 1900년대 27
그림21 1910년대 복장 27
그림22 1910년대 드레스 27
그림23 배처러 걸, 1920년대 28
그림24 애프터눈 슈트, 1927 28
그림25 샤넬스타일, 1920년대 중반 28
그림26 갸르송 스타일과 헤어스타일, 1920년대 28
그림27 헐리우드 이브닝드레스, 1930년대 29
그림28 마들리느 비오네, 1930년대 29
그림29 엘자 스키아파렐리, 1930년대 29
그림30 에드워디안 스타일, 1930년대 29
그림31 제 2차세계대전중의 패션 30
그림32 1940년대 초 패션 30
그림33 크리스챤 디오르, 1952 30
그림34 노먼 노렐 뉴욕, 1950년대 30
그림35 안나 카리나, 1960년대 31
그림36 몬드리안 룩, 1960년대 31
그림37 팝아트, 1960년대 31

그림38 엠마누엘 웅가로, 1960년대 31
그림39 비틀즈 31
그림40 프리슈넉 드레스, 1960년대 31
그림41 옵아트, 1960년대 31
그림42 제임스 갈라노스, 1970년대 32
그림43 겐조, 1970년대 32
그림44 칼 라거펠트, 1970년대 32
그림45 유니섹스 스타일, 1970년대 32
그림46 버버리 트렌치코트, 1970년대 32
그림47 미소니, 1970년대 32
그림48 믹재거. 1971년 32
그림49 샤넬, 1985년 33
그림50 토렌테, 1986년 33
그림51 아르마니, 1984년 33
그림52 노르마 카말리, 1980년대 33
그림53 샤넬, 1980년대 33
그림54 요지 야마모토, 1999년 34
그림55 프라다, 1990년대 34
그림56 질 샌더, 1990년대 34
그림57 도나 카란, 1990년대 34
그림58 질 샌더, 2002년 34
그림59 안젤로 모질로, 2002년 34
그림60 원랭스, 토니 앤 가이 클래식 커트 35
그림61 그레쥬에이티드 보브, 비달 사순 36
그림62 파이어 폴라이, 비달 사순 36
그림63 그레쥬에이션 보브, 피봇 포인트 36
그림64 오빗, 비달 사순 36
그림65 유니폼 레이어, 피봇 포인트 37
그림66 인크리스 레이어, 피봇 포인트 37
그림67 라운드 레이어, 움베르토 지안니니 37
그림68 스퀘어 레이어, 토니 앤 가이 37
그림69 깁슨 걸 스타일 헤어, 1910년대 38
그림70 1920년대 헤어 38
그림71 1920년대 모자 38
그림72 1930년대 헤어 39
그림73 1930년대 헤어 39
그림74 에드워디안 스타일 헤어 39
그림75 1930년대 헤어와 헐리우드 이브닝 드레스 39
그림76 1940년대 헤어 40
그림77 1940년대 헤어 40

그림78 1940년대 헤어(쇼트) 40
그림79 전후 헤어와 패션 40
그림80 1940년대 헤어와 패션 40
그림81 뉴룩, 크리스챤 디오르 40
그림82 마릴린 몬로, 1950년대 41
그림83 오드리 헵번, 1950년대 41
그림84 브리짓드 바르도, 1950년대 41
그림85 캠퍼스 헤어, 1950년대 41
그림86 헤어와 패션, 1950년대 41
그림87 재클린 케네디, 1960년대 42
그림88 튀기, 1960년대 42
그림89 지오메트릭 컷 & 드레스, 1960년대 42
그림90 내츄럴 스트레이트 롱헤어, 1960년대 42
그림91 마리안 페이스풀, 1960년대 42
그림92 히피스타일 헤어 & 패션, 1960년대 42
그림93 1960년대 보브 42
그림94 쉐어, 1960년대 42
그림95 파라 파셋, 1970년대 43
그림96 판탈롱과 헤어, 1970년대 43
그림97 1970년대 레어어, 이탈리아 43
그림98 1970년대 후반 스타일 43
그림99 펑키 헤어 43
그림100 펑키 헤어 43
그림101 1980년대 프레타 포르테 패션 44
그림102 남성 숏 헤어, 1980년대 44
그림103 여성 숏 헤어, 1980년대 44
그림104 헤비메탈 룩, 1980년대 44
그림105 1980년대 롱 헤어, 퍼머스타일 44
그림106 프렌치 시뇽 44
그림107 1990년대 모델 45
그림108 스트레이트 헤어, 1990년대 45
그림109 아시안 모델, 1990년대 45
그림110 레이어드 보브, 토니 앤 가이, 1990년대 45
그림111 레이어드 보브, 토니 앤 가이, 1990년대 45
그림112 레이어드 헤어, 귀도, 2000년 46
그림113 레이어드 보브, 테렌스 폴, 2000년 46
그림114 2000년대 롱헤어, 퍼머 스타일 46
그림115 디스커넥티드 쇼트 헤어 46
그림116 클래식 그레쥬에이션, 토니 앤 가이 47

그림117 로우 그레쥬에이션, 1930년대 48
그림118 쇼트 그레쥬에이션, 1940년대 49
그림119 쇼트 그래쥬에이션, 1940년대 49
그림120 미디엄 렝스 레이어, 1950년대 50
그림121 지오메트릭 커트, 1965년 51
그림122 1970년대 레이어, 토니 앤 가이 52
그림123 1970년대 레이어, 이탈리아 52
그림124 1980년대 레이어, 톱 플래너 53
그림125 레이어드 보브, 1990년대 54
그림126 디스커넥티드 헤어 55

Ⅰ.서 론

1. 연구의 목적

패션이라고 하는 용어는 과거에는 의상의 분야에만 국한하여 사용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의상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신발, 소품 등 의식주 모든 것에 의미를 두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분장의 영역에서도 얼굴과 관련하여 스테이지 메이크업, 영화를 위한 메이크업, TV촬영을 위한 메이크업 등이 있으며 이에는 반드시 의상과 헤어스타일이 결합하여 목적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참고문헌1).

의상과 헤어스타일은 그 패션을 결정하는 두개의 큰 요소로서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유기적인 시각적 조형적 법칙에 따라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 Haute Couture가 등장한 이후로 사회적 이슈(issue)나 사조의 변화에 따라 패션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변화되어 왔으며, 또한 약간의 형태를 달리하여 반복되어지기도 하였으며 이를 트랜드(TRENDS)라고 부른다(참고문헌2).

패션과 분장의 중요한 한 부분인 헤어스타일 역시 의상의 변화와 동일한 흐름을 가지고 있으며, 의상과 결합하여 패션을 잘 살릴 수 있는 법칙에 의하여 그 형태가 결정되어 왔는데 이는 일차적으로 헤어 컷에 의하여 시행될 수 있다.

패션 트랜드와 헤어스타일 변화의 상관성에 관하여 연구를 전개하며, 이 두 요소를 관계 짓는 요인을 실루엣이라고 가정한다. 20세기 패션의 뿌리가 되는 근세, 근대의 패션과 헤어스타일을 고찰하고 그 실루엣을 살펴본다. 20세기의 패션과 헤어스타일을 단순도형화한 실루엣 속에서 살펴본다. 각 decade별 사진

자료를 통하여 제시된 실루엣과 비교하며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패션트랜드와 조화롭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본다. 분장예술학의 관점에서 20세기의 헤어스타일을 이룰 수 있는 헤어 컷 기법은 무엇이 있으며 또한 각 decade를 대표하는 헤어 컷의 도달기법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제한

1) 근세이후의 패션과 헤어스타일을 먼저 역사 속에서 고찰 한다
2) 1920년대 이후의 대표적인 여성 패션 트렌드와 헤어스타일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3) 헤어스타일은 그 기본 형태인 헤어 컷 중심으로 연구한다.
4) 의상, 복식의 이론적 접근을 제외한다.
5) 근대 이전의 헤어 셋팅 기법에 의한 스타일을 배제한다.
6) 각 decade별 실루엣에 따라 패션과 헤어스타일의 상관성을 연구한다.

3. 연구방법

각종 연구 논문, 문헌 및 도록, 비디오테이프, CD-ROM, 인쇄물 등의 연구를 통해
1) 패션과 헤어스타일의 역사적 배경을 고찰한다.
2) 1920년대 이후의 대표적 트랜드의 실루엣을 규명한다.
3) 패션 트랜드와 헤어스타일을 공히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요소를 연구한다.
4) 패션 트랜드와 헤어스타일의 상관성 규명한다.
5) 20세기에 사용되는 헤어 컷 기법을 연구한다.
6) 국내외 헤어스타일 그룹들의 시대별 작품들을 분석하고, 20세기 패션과 관련한 문헌들에서 각 decade별 대표적 헤어 컷 선정한다.
7) 각 decade별 대표적 헤어 컷 도달기법을 규명한다.

Ⅱ. 본 론

1. 패션의 역사적 고찰

A. 근세

17세기 바로크시대

바로크 시대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안정된 시대이며 남성복장에서 다양함이 발견된다. 17세기 전반에는 네덜란드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여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고 세계 무역상권을 쥐게 됨에 따라 , 전 유럽에 걸쳐 홀랜드 모드가 유행하였다. 홀랜드의 실권은 프로테스턴트 자본가인 중산계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패션은 검소하고 실용적인 면이 강하였는데, 이는 최초로 패션이 귀족풍을 벗어나 새로운 스타일을 창안한 역사적인 전기가 되고 있다.

17세기 후반에는 루이 14세(1638-1715)의 보호 아래 실크와 레이스를 주축으로 하는 섬유 내수산업이 보호되고 장려되었다. 그 결과 프랑스 모드가 탄생되어 네덜란드로부터 주도권을 넘겨받아 전 유럽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675년 재봉공장에 일하는 여성근로자들이 조합결성 허가를 받아 장차 전문적 의상제작자의 기원을 이루게 되었으나 , 기성 재단사들의 압력으로 궁정의상과 공식적인 행사용 의상을 제작하지 못하고 가정용 의상만을 제작하게 되는데 이는 평상복 패션 발달의 기초가 된다(참고문헌3).

<그림1> 더치 스타일

<그림2> 프렌치 스타일

18세기 로코코시대

로코코시대의 전성기는 루이 15세(1715-1774)와 , 루이16세의 왕비인 마리 앙뜨와네트(Marie Antoinette 1755-1793)의 시대이었다. 패션의 여왕이라 불리우던 마리 앙뜨와네트는 로즈 베르탕(Rose Bertin 1744-1813)이라고 하는 개인 디자이너를 두었는데 여성적인 선과 우아한 디자인으로 로코코 패션의 정점을 이루던 인물이었다.

이 시기에는 교육받은 많은 시민들이 사회와 정치에 참여하고 계몽사상이 일어났다. 계몽사상은 전통적인 권위에 대한 관념의 도전이며 신흥 부르주와의 성장이 이루어졌으며, 동인도 회사에 의한 무역의 영향으로 인도와 중국의 면화와 실크 등의 유입이 이루어지고 색채나 문양에 있어서도 동양적인 것이 강한 영향을 미쳤다.

로코코 양식의 성격은 가볍고 섬세한 색채와 문양으로 세련된 귀족취향의 성격으로 그 주체는 장식미술이었다. 아름답고 화려한 곡선의 활용과 좌우균형을 파괴한 자유로움이 그 특징이며 장식적으로 문양화된 모티브와 자연적인 모티브가 뒤엉켜 있다.

또한 이 시기에 상류층에서는 살롱 문화가 유행하여 토론과 파티를 즐기는 가운데 로코코 패션의 보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마담 퐁파두르(Madame Marquise de Pompadour 1721-1764)는 그 문화의 한 가운데 있으며 마리 앙뜨와네트와 함께 로코코 패션의 중심축을 이루었다.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저렴한 원가로 고급품의 대량생산이 가능케 되고, 직물제조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일반적인 사람도 패션의 세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참고문헌4).

<그림3> 프렌치 스타일

<그림4> 폴랜드 스타일

B. 근대

고전주의 - 나폴레옹 1세 시대
낭만주의 - 왕정복고 시대
크리놀린시대 - 나폴레옹 3세 시대
세기말 - 버슬 스타일

19세기 신고전주의(1795-1820)

프랑스 혁명 이후 패션은 단순화해졌다. 남성복의 외양은 영국귀족의 전원 스타일처럼 단순해졌으며 표준화되기 시작한다. 번쩍거리고 화려한 장식이 사라지고 근검과 절약의 정신이 표현되었으며 소재에 있어서 실크에서 면으로 바뀌었다. 영국의 귀족들은 신흥 부르주아가 생기고, 평등주의가 대두되자 그들의 우위성을 엘레강스함을 추구함으로서 지켜나가려고 노력했는데, 이는 댄디즘으로 나타나게 된다.

여성들은 인위적이고 기술적인 아름다움에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으로 회귀하였으며 고대 그리스 로마 스타일에서 그 영감을 얻었다. 슈미즈(chemise) 스타일이나 엠파이어 (empire)스타일이 나타났다.

<그림5> 슈미즈 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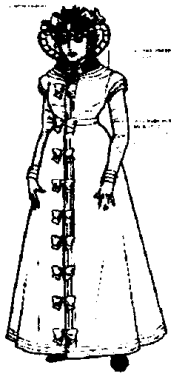
<그림6> 엠파이어 스타일

19세기 낭만주의(1820-1840)

부르봉(Bourbon) 왕조의 부활로 인하여 프랑스에서는 18세기 말의 스타일로 복귀하였다. 25년간의 휴지기 끝에 코르셋이 다시 등장했으며, 엑스자형의 실루엣이 미의 전형으로 여겨졌다. 파리에서는 엘레강스의 패권을 다투는 사교계가 융성하여 귀족들이 많은 패션모드를 만들어내었다. 신흥부르주아들에게도 귀족적 미의식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져 전통적인 귀족의 격식과 엘레강스는 여전히 지켜지고 있었다. 평등사상의 싹이 퍼지고 있었음에도 계급의식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영국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형성되어 사람들은 오직 돈버는데 관심을 기울였으며 패션이 산업이 되기 시작하였다(참고문헌5).

19세기 신로코코주의(1848-1870)

패션의 강국인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되었다. 특히 영국에서는 산업혁명 이래 기술적 진보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50년이나 앞서며, 농업기술의 발달에 의해 제외된 농업노동인력을 흡수하였다. 부르주아들은 부를 크게 축적하며 사회의 실권을 쥐며 그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패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 새로운 트랜드를 만들어 나갔다. 구 지배계급인 왕후귀족들은 수 백 년 동안 지켜온 부와 사회적 영향력을 잃지 않으며 신흥 부르주아가 보다 높은 클라스로 오르는 것을 저지하였다. 산업혁명에 의하여 실현된 기성복은 남성복은 획일화되고 색상이 차분해졌으며, 반대로 여성복은 훨씬 더 장식적으로 변하였다. 남성들이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성들에게 장식성이 강한 패션을 추구하도록 한 것이 사회적 분위기이다. 미국에서는 링컨대통령에 의해 노예해방선언이 발표되었으며, 일본이 1854년 개국을 하고 1868년에 복식을 서양스타일로 바꾸었다.



<그림7> 낭만주의 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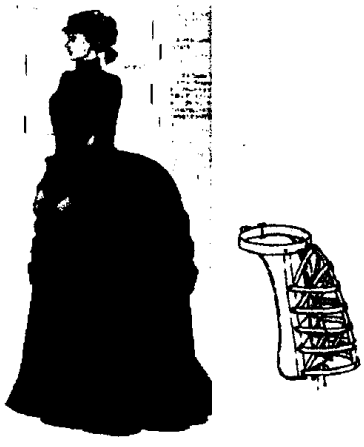
<그림8> 신-로코코(크리놀린)스타일

19세기 세기말 (1870-1900)

1871년에는 노동자와 소시민에 의한 자치정부인 파리코뮌(Paris Commune)이 세워졌다. 파리코뮌은 곧 붕괴되었지만 근대시민사회로의 전환을 해나가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파리모드는 아직도 궁정문화에 젖어있었으며, 왕후귀족을 중심으로 한 신흥 부르주아로 형성된 사교계는 그 화려함을 뽐내는 경연장이나 다름없었다. 사교계의 무도회를 비롯하여, 경마장, 카지노 등은 패션쇼나 다름이 없었다. 물랭 루지를 무대로 하여 세기말의 파리는 문학과 예술, 음악의 문화살롱이 전성기를 맞았다.

런던에서는 계급사회에서 대중사회로의 이행이 일어나는 가운데 , 모든 레벨의 사람들이 시민복으로 자루옷(sack suit)을 입었다. 경제적 발전에 힘입어 이른 시기부터 매스마켓(mass market)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세기말에는 1837-1901 동안 통치한 빅토리아 여왕의 영광속에서 신사와 숙녀들은 매일을 향락을 좇아 생활하는 이른바 방탕한 90년대(Naughty 90s)를 보냈다.

에디슨은 전기, 영사기, 축음기를 발명하였고, 모르스(Mors)는 전신을, 벨은 전화를 발명하였다. 다이믈러는 가솔린 엔진을 발명하고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발명하여 오늘날 생활을 위한 모던화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1877년 리바이 시트라우스(Levi Straus)의 프로토타입(proto type)인 데님 리바이스(denim Levi's) 501XX가 완성되고 , 재즈음악이 미국의 뉴 올리언즈(New Orleans)에서 탄생되었다.



<그림9> 버슬 스타일

<그림10> 프린세스 스타일

C. 20세기 : 오뜨 꾸티르 Haute Couture & 프레타 포르테 Prêt-a-Porter

자본주의의 발달에 의하여 의상도 산업과 비지니스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오뜨 꾸티르는 신흥 부르주아 층을 겨냥한 고급 창작의상 맞춤복이다. 최초의 오뜨 꾸티르는 1858년 영국인 찰스 프레데릭 워드에 의해서 이었으며, 1868년에 파리 오뜨 꾸티르 조합이 결성된다. 1911년에는 파리 오뜨 꾸티르 의상조합(Chambre Syndicale de la Couture Parisienne)으로 개조 되었다. 이 후 1960, 70년대에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프레타 포르테(prêt-a-porter)가 등장하기까지 약 100여 년간 많은 패션 거장과 트랜드를 배출하며 발전해왔으며, 프레타 포르테는 패션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트랜드를 확산시키고 있는 요소이다(참고문헌6).

* Haute Couture : 단 하나만을 창작해내는 고급 맞춤복으로 패션예술로써의 파리를 상징하는 대표적 용어이다. 화려하고 예술적인 면이 강하다.
  이탈리아나 미국의 실용적 합리성에 밀리며 시장을 많이 잃었지만 아직도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참고문헌7).
* Prêt-a-Porter : 디자이너 또는 회사 브랜드의 상표를 붙여 대량 판매하는 고급 기성복이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을 겪은 후 실용성과 편리성이 공존하는 형태로 패션산업의 주류가 바뀌고, 경제의 발달로 거대한 패션자본 기업이 발달하여 활성화되고 있다.
  파리, 밀라노, 뉴욕을 중심으로 하고 도쿄, 서울, 바르셀로나 등의 패션 부심이 있다(참고문헌8).

작품에 있어서는 기존의 형식이나 전통에 구애받지 않고 개인적인 기호 하에 개성에 맞추어 다양성을 보였다. 이러한 다양한 표현은 그 시대의 사회, 경제, 정치, 기술의 한 일면의 표현이며, 특히 인간의 내면적 미의식의 세계를 표현하는 예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산업혁명 후 기술의 세계, 양차 대전의 인간 정신의 갈등은 인간 회복의 표현으로 나타났는데 모든 일상의 생활예술에서 아르누보(Art-nouveau), 아르데코(Art deco), 바우하우스(Bauhaus) 등의 흐름을 따라왔다. 그로피우스(W. Gropius), 몬드리안 (Mondrian), 뒤샹(Marcel

Duchamp)의 세계는 폴 뽀와레(Paul Poiret), 엘자 스키아파렐리(Elsa Schiaparelli), 크리스찬 디오르(Christian Dior)의 세계와 더불어 표현되었으며 그들의 인간생활을 통한 정신세계의 미적 질서와 가치창조를 위한 노력은 새로운 평가를 얻었다. 패션의 영역에서 순수예술의 한 분야인 초현실주의 작가들인 미로(Miro), 클레(Klee), 에른스트(Ernst), 마쏭(Masson), 달리(Dali) 등의 작품이 도입되어 일반인들에게 패션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의 성립을 가져오게 하였다(참고문헌9).

동양풍의 20세기 초반 : 제국주의의 시대적 배경과 1909년 러시아 발레단의 파리공연을 계기로 유럽에서는 동양풍이 유행하였다. 터어키, 이슬람, 인도, 중국, 일본 등의 의상과 액세서리, 색상 등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 20세기 초반 프랑스에서는 벨 에포크(belle epoque)라고 불리는 시기였으며, 영국은 에드워드 7세 때였다(참고문헌10).

폴 뽀와레 : 아르누보 스타일의 과잉장식과 S자형 곡선에서 벗어나 엠파이어 스타일의 간단한 실루엣으로 모드 혁명을 일으키며 모던 스타일을 일으켰다.

제 1차 세계대전(1914-1918) : 전쟁은 여성복에 있어서의 선과 색채, 장식 변화의 단순화를 가속시켰으며 군복도 오늘날의 형태의 녹색과 철모로 대체되었다.

1920년대 : 연합군의 승리로 끝난 1차대전은 미국의 호경기에서 일어난 문화의 영향으로 전 유럽에 걸쳐 젊음의 문화가 유행하여 남녀평등사상과 자유연애풍조가 일어났다. 재즈, 흑인문화, 영화, 자동차, 아르데코, 샤넬(Chanel)로 표현될수 있다.

가르손느 스타일(Style a la Garçonne) : 전후의 사회적 요구와 분위기를 반영하여 스커트의 길이와 라인을 변경하여 여성다움을 부정하는 보이쉬 스타일을 샤넬이 유행시켰다. 쇼트 커트의 머리에 그로슈 해트, 로우 웨이스트 라인의 블라우스와 무릎까지 오는 스커트의 앙상블 등 전체적 실루엣은 날씬한 타입으로 변했다.

샤넬 (Gabrielle Chanel): 폴 뽀와레의 상류 부르주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숙한 동양적 낭만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단순하고 기능성을 중시한 슈트를 만들어낸 샤넬은 여성의 사회진출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그 시대 경제발전과 연결시켜 대중을 위하여디자인을 혁명적으로 시도한 최초의 디자이너이다.

1930년대와 스키아파렐리(Schiaparelli) : 20년대의 남성적 패션에서 다시 여성적인 부드러움과 곡선을 되살린 시대로서 스커트의 길이는 다시 길어졌다. 엘자 스키아파렐리는 30년대를 대표하는 디자이너로 화려한 색채와 문양을 표현하였으며 살롱 운영에 프레타 포르테 개념을 도입하였다.

1940년대 파리 오뜨 꾸티르 배출시대 : 1930년대 후반에서 2차대전 직후까지는 패드를 넣어 어깨를 올린 X자형과 상자형의 실루엣이 지배적이었다. 국제간의 긴장과 불안이 군국조의 유행을 불러왔다.

1950년대 디오르의 알파벳시대 : 크리스찬 디오르는 2차 대전 중 남성화된 복식을 다시 엘레강스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뉴룩(New Look)을 내 놓았으며 50년대에 A라인, H라인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장식성을 배제하고 소재가 가지는 특성을 살려 형체를 만들었다.

격변의 60년대 : 전후 세대들이 등장하여 사고의 혁신이 일어나 기존 권위나 질서가 없어지고 새로운 것들이 나타났다. 미니스커트, 우주시대의 개막, 비틀즈, 여성해방운동, 히피, 청바지, 마약, 유니섹스 모드, 사이키델릭 등으로 대표된다. 앙드레 쿠레즈(Andre Courreges), 지방시(Hubert de Givenchy), 피에르 가르댕(Pierre Cardin), 웅가로(Emanuel Ungaro),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 파코 라반느(Paco Rabanne) 등이 나타났다.

냉소적인 70년대 : 1960년대가 낙천적인 혁신의 시대라 할 수 있다면, 70년대는 불황의 부정적인 시대로서 탈도시적인 경향이 나타났으며, 70년대 후반에는 펑크punk와 같은 파괴적 무질서가 나타났다. 레트로 룩이 등장하여 클래식화한 가운데, 민속조의 룩, 빅 룩, 레이어드 룩이 나타났다.

탈 획일화의 80년대 : 다양화, 다원주의의 물결이 나타나 80년대 초반에는 일본의 붐이 크게 일어 다양한 방식의 레이어링에 의한 빅룩이 지속된다. 펑크 룩에 대한 반작용으로 포스트모더니즘과 네오 모더니즘이 등장한다. 안드로지너스(Androgynous)룩과 보수주의와 신 구성주의가 80년대 중반에 세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연회귀적인 90년대 : 90년대의 패션은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생태학이 패션테마의 주류를 이루었다. 패션은 상류사회의 한 점유물이 아니라 인간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환경으로 인식되었다. 남성다움, 여성의 심오한 미를 표현하기 보다는 사는 것, 삶의 일부로 표현되었으며 활동성, 기능성을 포함한 현대적인 매력을 내용으로 하였다(참고문헌11).

D. 스트리트 패션 Street Fashion

스트리트 패션이란 유명 디자이너의 창작적 패션과 달리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되는 거리의 유행 현상이 패션이 될 경우 하이패션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이다. 20세기 이후는 전반기의 대중과 유행의 시대 (modernism)와 후기의 스트리트 스타일(street style)의 시기로 나뉜다. 20세기 패션의 특징은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중매체의 발달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 후반의 특징으로 하위문화를 들 수 있다. 하위下位라는 것은 계급론적으로 노동자/하층 프롤레타리아의 위치를, 또는 세대론 적으로 청년군화의 위치를 말한다. 하위문화는 주류문화로부터 주변화 되거나 지배가치와 윤리로부터 배격당한 것들이라는 점이 특징이다(참고문헌12).

하위문화는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와 그 위기의 파급효과로 인한 노동자 계급의 생존권과 정체성의 위기 속에서 발생배경을 갖는다. 20세기 들어 청년들의 하위문화가 두드러지게 된 것은 2차대전 이후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활동하던 60년대이다. 이들은 라이프스타일, 음악,패션 등으로 스스로를 차별화 하였다. 이 하위문화는 기존 문화에 역으로 전이되어 나타나기도 하였다(참고문헌13).

1960년대 : 60년대 청년문화는 다양한 모습으로 스트리트 패션에 영향을 주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비트(Beats), 모즈(Mods), 통속파(Folkies), 록커즈(Rockers), 런던 사이키델릭(Swinging London & the Psychedelics), 히피(Hippies), 그리저(Greaser), 스킨헤드(skinhead) 등이 있다(참고문헌14).

1970년대 : 발렌시아가가 은퇴하고 프레타 포르테가 본격적적으로 형성된 시기로 60년대의 영향이 전세계적으로 모든 연령층에 확산되었다. 소울이나 R&B등 흑인음악이 탄생하였고, 겐조 등의 등장으로 다원적인 것들이 60년대의 문화와 섞여 표현되었다. 핫팬츠(Hot pants), 펑크(Funk), 글램(Glam), 민속조(Folklore), 펑크(N.Y Punk, London punk, Mode punk, Punk Rockers, Strteet punk)등이 있다(참고문헌15).

1980년대 : 80년대의 청년들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개인생활이나 소일거리에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반항적인 청년운동은 사라지고 온건하고 복고적인 50년대 패션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음악장르에 영향을 받은 패션이 등장하였다. 뉴웨이브(New Wave), 테크노(Techno), 뉴로맨틱(New Romantic), 투톤(Black&White), 헤비메탈(Heavy Metal), 프레피

(Preppie), 스쿨룩(School look), 힙합(HipHop), 갱스터(Gangsta) 레이버스(Ravers)등이 있다.

1990년대 : 90년대에는 과거처럼 뚜렷이 드러나는 폭발적인 유행이 없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는 다양한 표현을 추구하여 과거의 유행들이 서로 맞물리며 나타났다.
X세대 디자이너들이 등장하여 스트리트 스타일을 오뜨 꾸티르에 접목하여 새 바람을 일으켰으며, 슈퍼 모델들이 등장하여 패션산업의 총아가 되었다.
바디 컨셔스(Body Concious), 그런지(Grunge), 네오-히피(Neo-Hippies), 네오-펑크(Neo-Punk), 스쿨걸(School Girl), 아미룩(Army look), 뉴 모즈(Neo neo-mods)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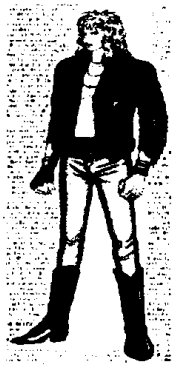
<그림11>
'60 히피

<그림12>
'60 그리저

<그림13>
'70 핫팬츠

<그림14>
'70 글램

<그림15>
'80 투톤



<그림16>
'80헤비메탈

<그림17>
'90네오-모드

<그림18>
'90그런지

2. 헤어스타일의 역사적 고찰

근대 말에 이르기까지 헤어 스타일의 극적인 변화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복식의 변천에 따라 길이의 변화나 스타일링 방향의 변화, 가발의 착용, 장식의 변화 정도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러한 류의 헤어스타일링을 총칭하여 셋팅으로 부른다. 산업혁명의 결과로 이루어진 발달된 산업화와 2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은 사람들의 의식과 생활양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고, 여성의 사회 활동으로 새로운 헤어스타일링 기법이 요구되어 다양한 컷팅 기법이 발달하게 되었다. 머리를 잘라서 스타일링하는 것을 헤어 컷팅이라 부른다.

A. 셋팅헤어Setting Hair; 바로크시대부터 1910년대까지

17세기 바로크시대

바로크시대 여성들의 머리형은 칼라(collar)둘레의 영향을 받으며 변화해 왔다. 17세기 초 대형의 러프(ruff)나 부채형의 세운 칼라가 유행할 때에는 가발 속에 모발을 넣고 포마드로 굳혀 높게 올려 빗은 후에 아름다운 핀으로 장식하였고, 시민풍의 플랫(flat)칼라가 유행할 때에는 컬을 만들어 길게 늘어뜨린 후에 리본이나 깃털장식을 하였다. 루이 14세 시대에는 귀족풍이 크게 유행하여 퐁탕쥬 라는 우아하고 기교적인 머리형이 나타났다. 17세기 후반에는 컬을 말아서 전체머리를 화려하고 크게 부풀린 머리를 하였다. 남성들의 머리도 칼라의 변화에 따라 짧게 자르거나, 길게 늘어뜨려 컬지게 하였다(참고문헌16).

18세기 로코코시대

로코코시대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머리형에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18세기 초까지는 바로크시대의 퐁탕쥬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루이 14세가 사망한 후 퐁파두르(pompadour)형이라는 부풀리지 않고 비교적 낮게 빗어 넘긴 깔끔하고 우아한 머리형이 유행하였다. 태양왕 루이 16세 시대에는 가발이 매우 발달하였다. 로코코의 여왕이라 불리는 마리 앙뜨와네트 시대에는 높고 커다랗게 부풀려지고 예술적인 장식을 한 머리가 유행하였다. 부풀린 원래의 머리에 가발과 여러 가지 장식물을 덧붙였다(참고문헌17).

근대

근대는 18세기 말에 발생한 프랑스혁명을 그 기점으로 한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구호 아래 시작된 혁명은 복식, 머리모양, 화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근대는 크게 네 시기로 나뉜다.

신고전주의(1789-1815) ; 나폴레옹이 집정한 때로서 로코코시대의 극단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짧게 다듬은 머리에 요란하지 않은 모자로 장식되었다.

낭만주의(1815-1845) ; 왕정이 다시 복고하여 낭만적 분위기가 되살아났다. 굵은 컬로 머리를 부풀려 올리는 스타일이 주류를 이루었다.

크리놀린시대(1845-1870); 나폴레옹 3세 시대로서 우아하고 깨끗하게 정리한 머리나 가볍게 틀어 올린 머리위에 컬 진 머리를 얹거나 늘어뜨려, 크게 부풀리는 것을 지양했다.

세기말(1870-1906) ; 버슬(bustle) 스타일이 유행한 때로 모발이 두상의 전체적인 형에서 벗어나지 않고 갸름해 보이도록 표현하였다.

1910년대

영화와 매스컴의 등장으로 미주와 유럽이 서로 교류하며 비슷한 양상을 띠게 된다. 20세기 초 미술가 깁슨(Gibson)이 창작한 깁슨걸 스타일이 유행하였고, 동양풍 의상의 유행으로 터번 등으로 머리를 감싸기도 하였다. 점차적으로 두상을 작게 표현하여 현대형의 컷트에 의한 머리시대를 예고하고 있다(참고문헌18).

B. 컷팅헤어(Cutting Hair) :1920년대 이후

1920년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을 획득하고 직업을 가지고 독립하는 여성이 늘어났다. 영화산업의 발달로 스타들의 패션을 모방하는 풍조가 생겨났다. 머리를 오랫동안 손질하는 습관은 사라지고 짧게 컷트한 스타일이 시작 되었다. 소년 같은 이미지의 가르손느 헤어컷, 이튼 스쿨의 학생 같은 머리인 이튼(Eton)컷이 유행하였다. 낮에는 모자를 쓰고 머리에 붙는 웨이브로 표현하였다. 보브 스타일이 등장한 것도 1920년대이다.

1930년대: 극단적인 쇼트 컷 스타일이 사라지고 미디엄길이의 헤어 스타일이 주류를 이루었다. 앞 가리마나 옆가리마를 하고 앞과 옆의 부피를 줄이고 뒷머리를 느슨하게 내려뜨리는 것이 유행하여 지금까지 보편적인 머리가 되고 있다. 헐리웃 영화산업이 전성기를 맞았으며 영화배우 진 할로우(Jean Halow)의 금발을 동경하여 대중들이 헤어 블리치를 시작하여 본격적인 염색시대를 맞았다(참고문헌19).

1940년대: 제 2차 세계대전의 영향에 의한 밀리터리룩과 볼드스타일에는 모자를 썼으나 크리스찬 디오르가 내놓은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스타일인 뉴룩 이후 모자는 실생활에서 점점 멀어졌으며 헤어 스타일은 점점 짧고 두상을 작게 표현하였다. 셋팅과 퍼머가 유행하였다(참고문헌20).

1950년대: 유럽문화권 중심의 유행에서 미국문화권 중심의 유행으로 옮겨간 시기이다. 짧은 머리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오드리 햅번식의 짧은 머리, 짧은 머리를 퍼머로 곱슬거리게 한 푸들 스타일, 마릴린 먼로식의 조금 긴 듯한 쇼트 컷을 롤로 말아 풍성하게 부풀린 버블스타일이 유행했다. 30년대 스타일의 중간길이의 웨이브 머리도 유행했다.

1960년대 : 높게 부풀린 벌집모양의 비하이브(bee-hive)스타일이 초반에 유행하였다. 또 극도로 짧은 컷트인 튀기(Twiggy)스타일도 유행하였으며, 비달 사순(Vidal Sassoon)이 등장하여 지오메트릭 컷을 선보였다. 젊은이들에게는 긴 스트레이트 스타일이 선호되었다. 브리짓드 바르도의 중량감이 있게 겹쳐진 흐트러뜨린 웨이브 머리도 유행하였으며, 남성들에게는 비틀즈 룩이 유행하였다. 레이어드 스타일이 등장하였다(참고문헌21).

1970년대: 길고 웨이브진 머리가 유행하였다. 레이어링이 본격적으로 유행하여 모발의 층과 움직임이 나타난 바람머리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30년대처럼 어깨 위에 느려 뜨러진 부드러운 질감의 컬이 다시 나타났다. 70년대 후반기에는 펑크룩이 등장하여 스파이키한 헤어컷이 유행하였다.

1980년대 : 80년대에는 다양한 모습이 나타났다. 긴 머리에 땋은 모습, 짧고 양성적인 모습 바싹 깎은 모습에 톱top을 잔디처럼 납작하게 깎은 남성헤어, 길고 부드럽게 웨이브 진 모습, 다이나 황태자비의 머리, 스트레이트 헤어가 유행하였다.

1990년대 : 간편하고 슬림한 자연스러운 머리형이 유행하였다. 스트레이트(straight), 레이어드 봅(layered bob), 베이직 레이어(basic layer) 등 전체적으로 작아 보이고 길어 보이는 스타일이 주류를 이루었다. 90년대 후반부의 뉴모드 영향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3. 스타일을 구성하는 조형적 요소 고찰

패션스타일은 대체로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감성적 측면에서 고찰되어진다. 패션은 하나의 디자인이며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에 의하여 분석될 수 있다. 디자인을 관찰하는 세가지 요소에는 형태(form), 질감(texture), 색채(color)가 있다. 형태는 조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입체적인 인체에 입혀서 표현하는 패션이나 두상에 시술하는 헤어 디자인은 근본적으로 조형예술에 속한다. 디자인을 하기 위하여 조형적인 요소를 조합하기도 하지만 이미 되어진 디자인을 조형적인 요소를 통하여 관찰할 수도 있다.

형태는 다음의 3요소를 포함한다. 선, 방향, 모양의 세 가지이다(참고문헌22). 선은 점이 모여서 이룬다. 길이만 있고 굵기와 넓이 부피가 존재하지 않는다. 선의 종류에는 직선, 수직선 사선, 곡선이 있다. 각각의 선은 고유한 느낌과 쓰임새가 있다(참고문헌23). 방향은 점의 모임인 선이 어느 곳으로 움직이는가를 의미한다. 수평선, 수직선, 좌대각선, 우대각선, 곡선 방향이 있다.

모양은 형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2차원적인 것으로 사물을 어느 한 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드러나는 평면적인 생김새를 말한다. 형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유파를 구분하기도 한다. 사실적으로 형체를 묘사하면 사실파이며, 자연을 과장하거나 추상적으로 묘사하면 후기인상파, 야수파, 입체파로 분류되고 기하학적이거나 추상적이면 추상파, 현실에 없는 형체로 묘사하면 초현실파로 구분한다(참고문헌24).

모양을 패션에서는 실루엣(silhouette)이라 부른다. 실루엣은 그 시대의 조형적인 형태적 특성이 반영되어 의복의 유행으로 나타나게 된다. 19세기 이후의 실루엣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 있다.

사각형실루엣:스트레이트 실루엣, 박스 실루엣, H라인 등이 있다.

사각형 실루엣은 장식성을 배제하고 허리와 힙을 강조하지 않는다.

삼각형실루엣:텐트형 실루엣, 역삼각형 실루엣이 있다. 삼각형 실루엣 역시

허리를 피트(fit)시키지 않는다. 텐트형은 어깨쪽이 좁으면서 가슴에서 밑단까지 넓게 퍼지는 형이다. 역삼각형은 어깨에 패드를 넣어 강조한 V자형의 실루엣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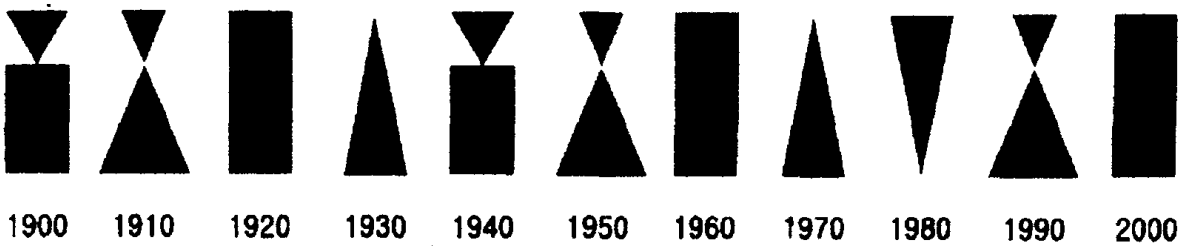
타원형실루엣:가슴과 배부분을 부풀리고 밑단이 좁아지는 것으로 벌크실루엣이라고도 한다. 배럴실루엣, 벌룬실루엣, 스핀들실루엣이 있다.

X자형실루엣:허리를 좁게 하고 밑단을 향해 퍼지게 한다. 아우어글래스(hourglass)형, 피트 앤 플래어(fit and flare)형 실루엣이 있다. 아우어그래스형은 가슴쪽이 약간 넓어 X자형이 된다. 피트 앤 플래어형은 스커트의 폭이 좁은 것과 넓은 것이 있다(참고문헌25).

4. 20세기 패션의 실루엣 고찰

시대에 따라서 의상의 실루엣은 변화하였으며, 의상의 실루엣과 관련되어 모자나 머리모양이 균형을 이루면서 변화하였는데 이는 패션 미의 본질적 요소 중 하나이다. 과거의 의상과 관련하여 머리형태를 연구할 때에 전체 패션의 실루엣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 실루엣을 바탕으로 도달 가능한 모발조형 원칙 - 헤어 컷 기법이나 시뇽기법-을 규명하여 과거의 머리형을 더욱 정확히 이루어낼 수 있다. 또한 패션 트렌드는 반복 재생되므로 새로운 헤어 패션을 창조하는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다.

실루엣의 단순화와 반복



<그림19>

20세기의 패션 실루엣은 4가지 유형의 도형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도형은 40년 주기로 되풀이 되고 있다. 헤어스타일은 이 도형의 구조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디테일한 요소들도 40년 전의 요소에 컨템포러리한 것을 추가하여 반복 재생되고 있다. 그러므로 과거 패션 실루엣을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의 의상과 헤어스타일을 예측하고 창조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참고문헌26).

1900 - 1910년대

폴 쁘와레 작품의 영향으로 실루엣은 비교적 편안한 오늘날 의상의 간편한 형태로 변했다.

1900년대

1910년대

<그림20>
1900년대

<그림21>
1910년대

<그림22>
1910년대

1920년대

직선적인 실루엣으로 인체의 구속을 완전히 배제하였다

<그림23>
배처러 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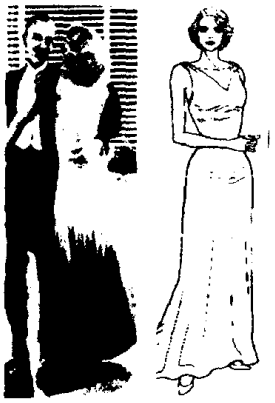
<그림24>
아프터눈 수트,1927

<그림25>
샤넬 스타일, 1920중반

<그림26> 갸르송 스타일과 헤어스타일

1930년대

30년대 말에는 허리우드 영화의 영향을 받은 낭만주의가 유행하였다.



<그림27>
헐리우드 이브닝드레스

<그림28>
마들리느 비오네

<그림29>
엘자 스키아파렐리

<그림30>
에드워디안 스타일

1940 - 195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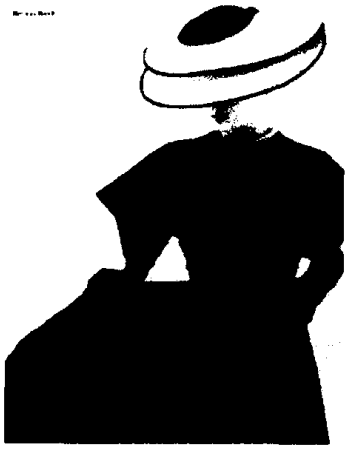
40년대 - 아우어글래스(hourglass)형 실루엣으로 넓은 어깨가 강조되었다.
50년대 - 피트앤 플래어(fit and flare)형으로 보다 여성스럽고 우아한 실루엣이며 디오르의 뉴룩의 영양하에 있다.

1940년대 1950년대

<그림31>
제 2차 세계대전 중의 패션

<그림32>
40년대초

<그림33>크리스티앙 디오르 19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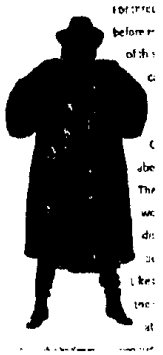
<그림34> 노먼 노렐, 뉴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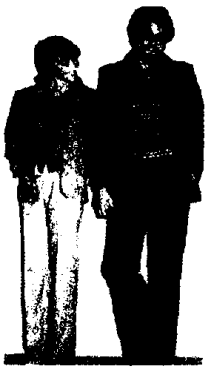
1960년대

초 미니에서 맥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길이가 공존 하였다.

1970년대

유니섹스 모드와 판탈롱이 유행하였다.
남성복은 종래의 단정함과 소재의 제한에서 벗어나 다양한 모습을 보였다.





<그림42> 제임스 갈라노스
<그림43> 겐조
<그림44> 칼 라거펠트
<그림45> 유니섹스 스타일

<그림46> 버베리
<그림47> 미소니
<그림48> 믹 재거 1971

1980년대

더 이상 지배적 유행은 존재하지 않으며 구조적 실루엣으로 이행하였다.

<그림49>
샤넬 1985

<그림50>
토렌테 1986

<그림51>
아르마니 1984

<그림52>
노르마 카말리 1980

<그림53>
샤넬

1990- 2000

주류를 이루는 유행이 없는 가운데 더욱 가늘고 긴 실루엣이 나타났다.

1990년대

2000년대

<그림54>
요지 야마모토'99

<그림55>
프라다

<그림56>
질 샌더스

<그림57>
도나 카란

<그림58>

질 샌더스 2002

<그림59>

안젤로 못질로 2002

5. 20세기 헤어 컷 기법의 종류

제 1, 2차 세계 대전 이전에도 헤어 컷의 개념이 있었으며 헤어 컷이 시행되었지만, 이는 전적으로 길이를 길거나 짧게 하는 정도의 개념에 불과 하였다. 이는 주로 칼라(collar) 모양의 변화에 따라 결정되었다. 전후에는 사회상이 변화하고 더 이상 머리 손질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게 되자, 헤어 컷으로 머리 형태를 유행하는 의상의 실루엣과 조화를 이루게 하고 약간의 손질로서 스타일을 내는 것이 일반화 하게 되었다.(참고문헌27) 20세기에는 헤어 컷을 중심으로 한 뛰어난 헤어스타일 연구가들이 등장하여 그 시대의 의상과 어울리는 스타일을 발표하여 트랜드를 이루어 나갔다. 그 중 비달 사순(Vidal Sassoon), 알렉상드르 드 파리(Alexandre de Paris), 안토니오 용게라스(Antonio Llongueras), 토니 앤 가이(Toni & Guy) 등이 유명하며 스쿨을 만들어 이론을 정립해 나갔다. 20세기 동안에 사용된 헤어 컷의 기법에 따른 종류를 고찰하여 본다.

A. 원렝스 One Length

생머리에서 가장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서 두상의 윗부분 곡선이 드러난다. 형태의 아랫부분에서 각이 진 라인을 볼 수 있다. 형태의 아랫부분, 즉 주변머리가 수평선, 대각선, 곡선 등을 이루며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다. 컬이나 웨이브가 표현될 때 풍성하게 부풀어 오른다(참고문헌28).

<그림60> Toni & Guy classic cut

B. 그레주에이션 Graduation

머리카락이 잘린 끝자락이 보이면서 두상의 윗부분, 혹은 목적한 부분까지 길이가 점진적으로 길어지며 볼륨이 형성되는 형태이다.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발의 길이에 따라 다양한 길이와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다. 단발 형태, 쇼트 컷, 긴 층머리, 짧고 둥근 머리 등이 있다. 1920년대 이후에 등장한 컷팅 기법으로, 전체적으로 둥글고 풍성한 실루엣을 표현할 수 있다(참고문헌29).

<그림61>클래식 봅
(classic bob)
비달 사순

<그림62> 파이어플라이
(firefly)
비달 사순

<그림63> 그레주에이션 봅
(graduation bob)
피봇 포인트

<그림64> 오빗 (orbit; round graduation)
비달 사순

C. 레이어 Layer

두상의 내부에서 두피로부터 각각의 모발을 펼쳤을 때, 모든 모발의 길이가 똑같이 나타나며 두상의 둥근 모양을 드러내거나 , 모발의 길이가 위에서 아래로 , 앞에서 뒷 방향으로 점점 길어지며 층을 이루는 형태이다. 1960년대 이후에 다양한 모습으로 발달한 형태이다. 생머리였을 때 납작하게 부피감이 제거된 형태로 나타나며, 웨이브나 컬이 표현될 때에 부분적인 볼륨, 방향감과 움직임이 나타난다(참고문헌30).
각각의 모발을 두피로부터 펼쳤을 때 , 잘린 모발 각 끝점의 연결에 의해 드러나는 모양에 따라 다음 4가지의 형태로 분류된다.

유니폼 레이어(Uniform layer): 모든 모발의 길이가 다 똑같으며 둥근 두상의 모양을 그대로 드러내는 형태

인크리스 레이어(Increase layer); 모발의 길이가 위에서 아래, 앞에서 뒷 방향으로 길어지는 긴 레이어로 특정 부분의 길이 가이드로 전환(conversion)되거나 안쪽으로 일정하게 잡아당겨져(inversion) 잘려지는 형태

라운드 레이어(Round layer) ; 두상의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길어지되 두상 윗부분의 둥굴음을 따라서 연결되게 층나며 잘려지는 형태

스퀘어 레이어(Square layer); 잘려져 펼쳐진 모발의 연결점의 일부가 평평한 모습이거나, 다면체의 사각 틀 모습인 형태(참고문헌31).

<그림65>
유니폼레이어
피봇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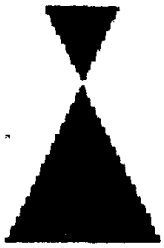
<그림66>
인크리스 레이어
피봇 포인트

<그림67>
라운드 레이어
움베르토 지안니니

<그림68>
스퀘어 레이어
토니 앤 가이

6. 20세기 decade별 헤어 스타일 고찰

1910년대



<그림69>

특별히 규정지을 만한 헤어 컷 스타일이 등장하지 않았으며 길게 자라난 머리를 최대한 작게 감싸 올렸다(그림 69).

1920년대

<그림70> <그림71>

원랭스 컷에 의한 단발을 하거나 그레주에이션 보브의 일종인 이튼 컷을 하였다. 파티나 모임의 자리에서는 핑거 웨이브를 하였으며 , 의상에 맞추어 모자를 쓰기도 하였다(그림 70,71).

1930년대

<그림72>

<그림73>

<그림74>

<그림75> 1930년대의 헤어스타일과 헐리웃 스타일의 이브닝 드레스

평상시에는 어깨 너머로 웨이브 지는 긴 원랭스나 무거운 그레주에이션 컷트가 유행하였으며 에드워디안 스타일의 올림머리가 유행하였다(그림 72,73,74).

1940년대

<그림76>

<그림77>

<그림78>

<그림79>

<그림80>

<그림81>

제 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40년대의 머리 모양은 30년대에 비해 크게 다른 것이 없다. 콜드 웨이브 로션이 발명되어 퍼머넌트 웨이브가 크게 유행하였다. 무거운 그래주에이션에서 벗어나 각각의 길이에 따른 레이어 스타일이 엿보인다. 40년대 후반에 쇼트 그레주에이션이 유행하였으며, 긴 머리의 경우 크리스찬 디올의 뉴룩에 어울리도록 높고 작게 올림머리를 하였다(그림 76, 77, 78, 79, 80, 81).

1950년대

<그림82>

<그림83>

<그림84>

<그림85>

1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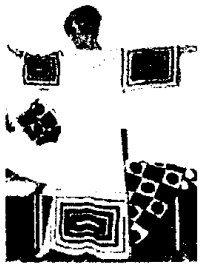
<그림86>

모자를 착용하는 일은 거의 없어졌다. 쇼트 컷, 쇼트 그레주에이션, 층진 둥근 단발, 길게 층 낸 머리 등 모든 클래식 헤어컷이 등장하였다. 영화산업의 발달로 스타들의 머리모양이 유행하였다. 올림머리의 방향도 후두부나 두상의 낮은 위치에 간단하게 고정시키는 것으로 변하였다. 포니테일이 등장하였다 (그림82, 83, 84, 85,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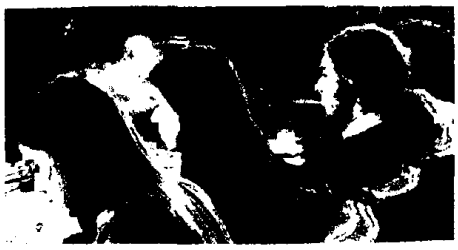
1960년대

<그림87>

<그림88>



<그림89>



<그림90>

<그림91>

<그림92>

<그림93>

<그림94>

1960

문화의 중심이 헐리우드에서 런던으로 넘어간 시기이다. 50년대에 이어 헤어 컷이 매우 발달하였다. 바우하우스의 영향을 받은 그레주에이션 보브, 지오메트릭 컷이 등장하였다. 튀기(Twiggy)스타일의 짧고 둥근 컷, 베이직 레이어, 롱스트레이트 원랭스가 유행하였다. 60년대 초기에는 벌집모양의 비-하이브 스타일이 유행하였고 , 후기에는 히피문화가 발생하여 롱스트레이트 혹은 에스닉풍의 땋은 머리가 유행하였다(그림 87, 88, 89, 90, 91, 92, 93, 94).

1970년대

<그림95>

<그림96>

<그림97>

<그림98>

<그림99>

<그림100>

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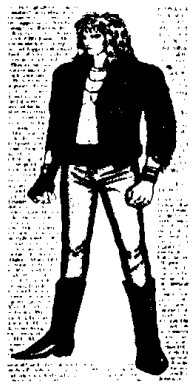
1970년대 헤어 컷의 특징은 30년대의 복고풍으로 자연스럽게 컬이 진 스타일이 선호되었다. 긴 머리에 움직임이 많은 모든 종류의 레이어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유행하였으며, 70년대 후반 펑크스타일의 영향으로 뻗힘 머리의 질감이 가미된 둥그런 레이어가 유행하였다(그림 95, 96, 97, 98, 99, 100).

1980년대

<그림101>

<그림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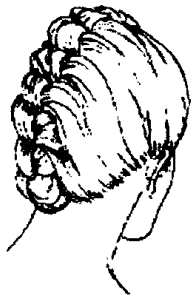
<그림103>



<그림104>

1980

<그림105>



<그림106>

어깨가 강조된 의상의 실루엣을 살리기 위하여 헤어스타일은 부풀려서 표현되거나 모자를 썼다. 남성스러운 짧은 그레주에이션이나 레이어에 앞머리가 길게 표현되었다. 남성 헤어는 톱이 평평한 쇼트컷이나 헤비메탈 룩의 어깨 길이 레이어에 웨이브가 부드럽게 표현됐으며, 여성의 머리에도 영향을 미쳤다. 디스코 스타일이 유행하여 어깨가 강조되고 달라붙는 하체에 프렌치 브레이드(french braid)로 땋은 머리가 유행하였다(그림 101, 102, 103, 104, 105, 106).

1990년대

<그림107>

<그림108>

<그림109>

<그림110>

<그림111>

두상이 가능한 한 작아 보이는 레이어가 유행하였다. 레이어링 테크닉에 의한 보브 스타일의 변형이 많았다. 사이버 룩의 영향을 받아 원랭스 계열의 스트레이트 헤어 스타일이 유행하였다(그림 107,108,109,110,111).

<그림112>
귀도(Guido)

<그림113>
테렌스 폴(Terence Paul)

<그림114>
체바도(Cebado)

<그림115>온리 그린, 아모스 2002 F/W Free

여러 가지 길이에서 다양한 헤어컷이 선보이고 있다. 60년대의 실루엣이나 디테일이 나타나고 있으며 긴 장방형의 구조 내에서 두상이 더욱 작고 길게 표현하기 위하여 동일한 헤어 컷 안에서 디스커넥션(disconnection)하고 있다(그림 112, 113, 114, 115).

7. 20세기 decade별 대표적 헤어 컷 고찰

1920년대

그레주에이션 보브(Graduation Bob); 클래식 그레주에이션 보브로써 이튼 스쿨풍의 헤어컷이다. 옆머리에서는 거의 원랭스의 라인을 이루나 아랫부분에서는 잘리운 자락이 드러나면서 볼륨을 형성한다(참고문헌32). 영국풍의 스쿨룩이 우리나라에 들어 온 이래 오랫동안 여학생들의 헤어컷으로 애용되었다(그림116).

도달기법 1) 가리마 방향으로 파팅한다.

2) 옆머리는 수평섹션으로 뒷머리는 뒤로 가는 사선섹션을 취한다.

3) 옆머리는 낮은 시술각도에 고정가이드로, 뒷머리는 미디엄 시술각에 이동가이드로 자르다가 고정가이드로 자른다

4) 뒷머리는 반대편 네이프 코너까지 진행한다.

5) 반대편도 동일하게 시술한다

6) 센터 백에서 수평섹션으로 체크하며 튀어나온 부분을 제거한다.

<그림116>그레주에이션 보브

1930년대

로우 그레주에이션 보브(Low Graduation Bob); 30년대 헐리웃의 스타들이 흔히 하였던 헤어 컷이다. 형태로는 어깨길이의 둥근 단발이며 헤어라인을 따라 둥글고 부드럽게 볼륨이 형성된다(참고문헌33). 셋팅을 말아 컬을 형성시킨 후 부드럽게 브러싱하여 스타일링을 하였다(그림117).

도달기법 1) 헤어라인을 따라 섹션을 내린 후 나머지 머리를 고정시킨다.

2) 헤어라인의 모발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후 원하는 라인으로 자른다.

3) 네이프에서부터 U 자형 섹션을 그리며 이동가이드로 30도 정도의 시술각도로 직각분배하여 자른다(참고문헌34).

4) 두상의 절반을 넘어서면 고정가이드로 자른다.

5) 모발을 세로로 둥글게 들어가며 무겁게 각진 부분을 가볍게 한다.

<그림117> 로우 그레주에이션

1940년대

쇼트 그레주에이션(Short Graduation); 짧고 둥근 형태의 헤어컷이다. 층일하고 풍성한 볼륨을 표현할 수 있다. 약간 컬이 진 모질에 가장 잘 어울린다. 기법으로는 양사이드에서 백에 걸친 그레주에이션이다(참고문헌35). 50년대에도 보다 길고 둥근 형태의 컷을 많이 하였다(그림118,119).

도달기법 1) 톱머리를 둥글게 분리하여 고정시킨다.

2) 귀밑머리를 내려서 적당한 길이로 자른다.

3) 뒤로 가는 사선섹션을 떠서 낮은 시술각으로 들어 후두부 방향으로 잘라 나간다.

4) 이동가이드를 사용하여 반대편 네이프 코너에 이를때까지 진행한다.

5) 섹션이 계속될수록 사선에서 보다 수직이 되도록 뜬다.

6) 반대쪽도 동일하게 한다

7) 윗머리를 내린 후 프린지를 둥글게 섹셔닝하고 둥글린다.

8) 계속하여 이동가이드로 진행한다(참고문헌36).

<그림118>

<그림119>

쇼트 그레주에이션

1950년대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뉴룩의 영향으로 가능한 한 가장 작은 머리로 표현하였다. 40년대와 별다른 헤어 컷은 없었으나 위로 올렸을 경우, 더욱 작아보이기 위하여 긴 머리 헤어 컷도 더욱 시술각도를 높게 하여 층을 주었다(참고문헌37) (그림120).

미디엄 레이어(Medium layer) ; 미디엄 길이의 그레주에이션 컷트 위에 약간의 레이어링을 하여 더욱 모발의 부피가 작고 가볍게 변형시킨 헤어 컷이다.

도달기법 1) 헤어라인 주변의 머리를 내린다.

2) 원하는 아웃라인을 자른다.

3) 네이프부터 U 섹션을 떠가며 로우 - 미디엄 그레주에이셔닝 한다

4) 가리마 부분에서 뒤로 가는 사선섹션을 뜬 후 각 모발을 두피로부터 90도로 들며 원하는 만큼의 부피를 제거시킨다.

5) 고정가이드를 사용하여 후속되는 섹션의 머리가 더 이상 오지 않을 때까지 레이어링한다(참고문헌38).

<그림120> 미디엄 렝스 레이어

1960년대

지오메트릭 컷트(Geometric Cut) ; 유럽에서 일어난 건축, 예술사조인 바우하우스의 영향을 느낄수 있는 비달사순의 1964년도 작품으로 헤어 컷이란 인간을 재료로 한 건축과 같다고 한 그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참고문헌39). 기하학적인 빗질과 커트기법을 사용하였다(참고문헌40) (그림121).

도달기법 1) 전두부 후두부를 가른 후 네이프 파팅한다.

2) 센터 네이프를 가르고 앞 방향 사선 섹션을 사용하여 이동 가이드로 그레주에이션한다.

3) 다시 사이드 네이프에서 뒤 방향 사선 섹션을 이용하여 그레주에이션한다.

4) 인테리어 머리를 내려가며 고정가이드로 자르되 시술각을 유지한다

5) 필요에 따라 관자노리 앞부분을 뒤 방향섹션을 그으며 고정가이드로 0도 시술각으로 그레주에이션한다

6) 각 코너를 강조하며 다듬는다.

<그림121>지오메트릭 1965

1970년대

인버티드 레이어(Inverted Layer) ; 1970년대는 가히 미디움이나 롱 레이어의 전성기라고 할 만 하였다. 60년대의 볼륨있는 스퀘어에서 보다 자연스럽게 아래로 흐르는 듯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기 위하여 머리자락의 움직임을 강조하고 윗머리의 부피감이 없는 스타일이 요구되었다(참고문헌41). 윗머리 쪽으로 섹션의 모발을 끌어 올려 레이어링하는 기법의 헤어컷이다(그림122,123).

도달기법 1) 원하는 헤어라인의 모양으로 길이를 자른다.

2) 앞머리를 고정가이드를 사용하여 레이어링한다.

3) 윗머리 부분에 원하는 길이의 가이드를 자른다.

4) 두상의 모양대로 따라가며 수직섹션을 떠서 두상 아랫부분의 모발이 거꾸로 뒤집히며 끌어올려 지게 한다.

5) 윗 가이드와 아랫길이 가이드 사이를 레이어링한다(참고문헌42).

<그림122>토니 앤 가이 1971

<그림123> 보그 이탈리아 1971

인버티드 레이어 (Inverted layers)

1980년대

록커 룩 레이어(Rocker look layer) ; 1980년대의 스트리트 패션인 록커의 룩이 패션뿐만 아니라 헤어에 스며든 것으로 기법상으로는 짧은 윗머리에 아랫부분의 모발들이 두상에 밀착되며 완전히 뒤집혀져 당겨지며 레이어링 된 것이다(참고문헌43). 당시 트렌드의 역삼각형 실루엣에 어울릴 수 있도록, 웨이브가 많이 진 부풀린 모습으로 스타일링 되었다. 기법상의 이름은 Planar top and converted layer라 할 수 있다(참고문헌44) (그림124).

도달기법 1) 원하는 길이로 자른다.

2) 앞머리를 고정가이드로 레이어링한다.

3) 톱 부분을 스퀘어 레이어 한다.

4) 두상을 따라 돌아가면서 아랫머리를 톱스퀘어의 가장자리에 전환시켜 레이어링한다.

<그림124> 서바이벌 1982, 브루노 마스콜로

1990년대

보브 레이어(Layered Bob) ;다양한 길이의 헤어 컷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두상이 작아지게 보이면서 무난한 보브길이의 변형 컷이 많았다. 비달사순의 컨템포러리 커트 시리즈에서도 레이어링 테크닉에 의한 보브의 다양한 변화를 볼 수 있다(참고문헌44)(그림125).

도달기법 1) 원하는 길이의 원렝스 봅을 자른다.

2) 원하는 컷팅앵글을 결정한다.

라운드, 스퀘어, 그레주에이션 등

3) 후두부 중앙에서부터 레이어링 한다.

4) 섹션 진행방향을 결정한다.

피보팅, 버티컬 등

5) 이동가이드를 사용하여 진행한다.

6) 옆이나 앞머리에 이를수록 오버다이렉트한다(참고문헌45).

<그림125> 레이어드 보브 , 토니 앤 가이

2000년대

디스커넥션 컷(Disconnection Cut); 20세기에 나타난 모든 종류의 헤어 컷이 2000년대에는 다 나타날 수가 있다. 1960년대의 장방형의 실루엣이 2000년대에도 등장하는데, 더 길고 슬림한 실루엣으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종래의 헤어 컷이 더욱 가늘고 얇으면서도 다양한 헤어 컷이 요구하는 선, 움직임, 볼륨 등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필요로 하였다. 필연적으로 디스커넥션이 등장하게 되었다(참고문헌46) (그림126).

도달기법 1) 두상을 후대각 방향으로 둥글게 3등분한다.

2) 원하는 비율로 1:2 혹은 2:1 비율로 나누어 고정한다.

3) 3등분 중 아랫부분을 짧게 한다.

- 사용될수 있는 기법은 유니폼 레이어링, 원렝스, 쇼트 그레주에이션 등이 있다

4) 윗부분의 머리가 아랫부분의 머리를 덮을 수 있게 자른다.

- 궁극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컷트의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다

5) 겉머리의 윗부분에 보다 짧은 가이드를 설정한다.

6) 움직임을 나타나고 싶은 반대방향으로 잡아당기며 레이어링한다.

(참고문헌47)

<그림126> 디스커넥티드 쇼트 레이어

III. 결론

*** 실루엣 내에서의 상관성**

근세 이후 패션의 변화는 무척 괄목할 만 한 것이었다. 바로크시대와 로코코시대 패션 실루엣의 특징은 과장성에 있다. 이는 시대적인 배경에 의한다. 17, 18세기의 유럽은 르네상스 이 후 유럽문화의 최 전성기였으며 동시에 귀족문화의 꽃을 피운 시기이다. 산업과 기술의 발달로 소재산업이 발달되고 장려되었다. 동인도회사 설립 이후 무역이 발달하고 부를 축적하였다. 그러므로 귀족의 위용과 지위를 과시하기 위하여 사치스러운 치장과 과장이 필요하였다. 헤어스타일도 이에 부응하여 부풀리거나, 원래의 머리가 아닌 컬이 진 가발 등을 사용하였다. 즉, 헤어셋팅의 기술이 발달한 시기이다.

상업과 무역의 발달로 인하여 신흥 부르주와가 탄생하고 시민의식이 성장하여 발발한 프랑스혁명은 근대시민사회로 이끌었다. 패션 실루엣도 점차로 실제적이고 축소된 모습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장식적인 면이 강하였다. 이 시기의 헤어스타일은 최소한의 간략화 된 헤어셋팅에 모자를 즐겨 썼다. 관의 사회적 정치적 상징성이 없어지고 의상과 헤어를 연결짓는 역할을 하였다. 이 시기의 패션은 여전히 인체를 억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20세기 초의 약 10여년간은 벨 에포크라고 불리우는 시기로 서양패션에 동양풍이 강하게 반영된 시기로 소재나 디자인에 있어 서구중심의 사고에서 그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었던 과도기적 기간이었다.

제 1, 2차 세계대전은 여성복의 현대화를 앞당기는 촉매제의 구실을 하였다. 인체를 억압하는 일체의 구조와 불필요한 장식이 없어지고 실루엣도 실제 생활에 거스름이 없도록 점차로 단순화해졌다.

현대화된 패션은 1858년 워드가 최초로 고급 맞춤점인 오뜨 꾸뛰르를 연 이래 많은 오뜨 꾸뛰르가 생기고 조합이 결성되어 그 명맥을 오랫동안 유지해오다가 거대한 패션자본이 형성되고 고급의상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고급기성복 형태인 쁘레타 포르테가 활성화되었다. 전후세대들이 성인으로 등장한 60년대에는 기성문화에 대한 하위문화인 청년문화가 등장하고 ,복합적인 사회현상과 연관되어 스트리트 패션이 탄생하였다. 이후 오뜨꾸뛰르나 프레타 포르테에서 스트리트 패션적인 요소를 고급 옷에 채용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게 되었다.

20세기 들어 패션의 실루엣을 매 10년 주기로 살펴보았을 때 하나의 유행 실루엣이 약 40년의 주기로 반복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실루엣은 매우 단순해지고 정형화되었다. 오버하우스 주니어(A. Edward Overhaus, Jr)는 장방형, 삼각형, 역삼각형, 직사각형 위의 역삼각형, 삼각형 위의 역삼각형 등의 단순한 도형으로 20세기 100년동안의 실루엣을 정리하였다. 이 변화의 과정은 인체의 구조를 존중하면서 사회적인 이슈에 맞추어 표현된 다양한 시도임을 알 수가 있다. 20세기 패션에 있어 모자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등장하였다. 대신에 헤어 컷으로 다양한 형태를 하고 여기에 퍼머나 염색, 블로우 드라이 등으로 스타일을 내는 기법이 발달하였다. 헤어 컷에 의한 형태변화는 당시의 예술사조와 패션 실루엣의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

1910

머리를 위로 올려 고정하고 모자를 썼다. 어깨에 딱 맞고 허리가 조여지고 플레어된 아랫단을 한 실루엣에 어울릴 수 있도록 스타일 되었다.

1920

세로로 긴 장방형을 한 샤넬라인이 대표적인 실루엣이다. 헤어 컷은 두상을 가능한 한 작게 표현하되 너무 달라붙지 않는 적당한 볼륨을 표현할 수 있는 원렝스 보브스타일이나 그레주에이션 보브스타일이었다.

1930

세로로 긴 이등변 삼각형의 실루엣을 가진 30년대의 이브닝 드레스가 대표적인 패션이다. 두상의 맨 윗부분부터 머릿결이 타고 내려와 아래로 갈수록 삼각형으로 넓어질수 있도록 한 어깨길이의 그레주에이션 보브에 컬을 넣은 헐리웃 스타일이 있었으며, 유럽에서는 높이 올려 붙여 두상이 삼각형의 맨 위가 되도록 표현하였다.

1940

제 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어깨에 각이 지고 다리를 잘 움직일 수 있게 폭이 좁지 않은 사각구도의 옷에 모자를 썼다. 헤어 컷은 30년대와 유사하나 퍼머넌트 웨이브가 더하여져 더욱 풍성하다.

1950

40년대 말 크리스티앙 디오르의 뉴룩 발표로 인하여 되돌아 온 1910년대의 실루엣이나 동체는 더욱 피트fit되고 하체는 더욱 풍성한 실루엣이다. 상체의 역삼각형 구조를 거스르지 않도록 되도록 작은 머리를 하였다. 짧은 드레스일 경우 둥근 쇼트 그레주에이션 컷에 풍성한 컬을 하였고, 긴 머리일 경우는 더욱 얇은 레이어 컷을 해 올렸을 때 아주 작은 두상이 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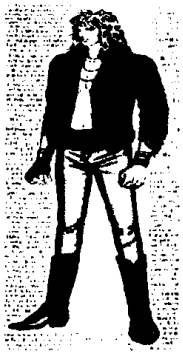
1960

젊은 문화인 60년대는 허리를 잡지 않고 어깨 폭과 골반넓이의 사각형이 길고 편안하게 드리워진 실루엣이다. 패션에 있어서는 소재와 색깔, 선과 면을 이용한 시각적 효과가 젊은이의 문화만큼이나 다양하게 시도되었으므로 두상의 모양을 강조하거나 축소시키지 않는 롱 스트레이트, 롱레이어, 쇼트 베이직 레이어 등이 일반적이다.

1970

60년대의 긴 직사각형에서 과장되지 않고 편안하게 아래가 조금 더 넓어진 삼각형의 실루엣이다. 헤어스타일은 모자를 이용하거나 롱레이어에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넣어 적당히 부풀렸으며 중간 정도의 볼륨이 표현되는 그레주에이션 컷이 유행하였다.

1980



70년대의 편안함과 반대되는 실루엣이다. 어깨를 강조하는 역삼각형으로 머리는 극단적으로 짧게 하던가 모자를 써 어깨가 더욱 강조되게 하였으며 긴 머리의 경우 웨이브를 많이 넣어 부풀려서 헤어스타일이 각진 어깨와 동일시되도록 하였다. 평면적인 톱 가이드에 끌어올리는 레이어링 컷트 기법을 사용하여 둥글고 큰 머리가 되는 것을 피하였다.

1990

동체가 더욱 축소되고 작은 모습에 아랫부분이 길고 약간 넓어지는 실루엣이다. 부피는 50년대에 비하여 매우 작아졌다. 헤어 컷은 질감이 거의 없는 스트레이트나 레이어드된 보브스타일로 부피감을 줄이면서 축소시킨 동체와의 연결감이 추구되었다.

2000

90년대의 실루엣이 50년대 실루엣을 길고 가늘게 변형시킨 것처럼, 이미 90년대 말부터 과거 60년대의 실루엣이 등장하고 있다. 이 실루엣 역시 더욱 가늘고 길게 표현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 내에서 60년대와 70년대 초반의 모든 디테일이 나타나고 있으나 더욱 가볍고 얇게 표현되고 있다. 헤어 컷도 극도의 스트레이트나 동일한 두상 내에서 모발길이간의 연결을 끊어 더욱 부피감을 없애는 디스커넥션 컷이 시도되고 있다.

40년 주기로 되돌아오는 실루엣이 과거의 모습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축소되어 인체의 자연그대로의 구조에 최대한 접근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20세기 전반의 실루엣의 변화는 사회상의 변화에 따랐음을 알 수가 있었으며, 60년대를 기점으로 한 후반부에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과 새로운 시도에 의하여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며 관련이 있는 역사적 사회적 사실에서 드러난 내용에 관하여 연구하여 볼 가치가 있는 주제를 많이 발견하게 된 것은 커다란 소득이

다. 르네상스 이후 바로크 로코코 시대의 가발성형의 기법과 종류 및 용도, 스트리트 패션의 헤어스타일 표현기법, 헤어 컷의 볼륨과 부피감소의 상관관계 등은 분장학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해 볼 과제이다.

참고문헌

1. 장우식,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분장예술론 강의자료
2. 패션큰사전 1999, 패션큰사전 편찬위원회 p634
3. 高村是州 Zeshu Takamura(1997), Roots of street style ザ・ストリート スタイル』, graphics 社g pp12 -15
4. 정홍숙(1998) 『로코코시대의 프랑스 직물에 나타난 신와즈리(Chinoiserie)영향에 관한 연구 』 http://www.fashion-a.com/html/thesis/jung_s/40_1998htm
5. 김희숙/이은임(1996), 메이크업과 패션, 수문사 p37
6. 허준, 현대패션 100년사 그 발전의 비밀, 월간 멋 창간6주년 기획
7. 패션큰사전 1999, 패션큰사전 편찬위원회 p445
8. 패션큰사전 1999, 패션큰사전 편찬위원회 p688
9. 김명호 인터넷 초현실주의 http://my.dreamwiz.com/K9204/surre.htm
10. 안현경/이귀영(1997), 20세기 미용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한국미용학회지 제3권 제1호
11. 허준, 현대패션 100년사 그 발전의 비밀, 월간 멋 창간6주년 기획
12. 20세기 이후 현대유행의 특징 http://www.startok.co.kr
13. 간문자(1998), 청소년 문화가 스트리트 패션에 미친 영향 http://www.fashion-a.com/html/thesis/kanmj/191998.htm
14. 간문자(1998), 청소년 문화가 스트리트 패션에 미친 영향 http://www.fashion-a.com/html/thesis/kanmj/191998.htm
15. FLASH, FDC패션디자인연구센터 통권57호 (2000년 6월), 고문당
16. 김희숙/이은임(1996), 메이크업과 패션, 수문사 p26
17. http://www.helpline.co.kr/808/opendata/skin/makeup/6html
18. 김희숙/이은임(1996), 메이크업과 패션, 수문사 p42
19. Annalee Gold(1991), ' 90 years of fashion ', Fairchild Publishing p 91
20. 나윤영/윤점순(2002), 미용산업발달에 따른 헤어스타일 변화에 관한 연구 ,패션 비즈니스 학회지 p43 제6권 제 3호
21. 나윤영/윤점순(2002), 미용산업발달에 따른 헤어스타일 변화에 관한 연구 ,패션 비즈니스 학회지 p,46 제6권 제 3호
22. Hairsculpture Ladies, Pivot Point International p9

23. 조열,김지현(1999), 형태지각과 구성원리, 창지사 p32
24. http://hinsan.hihome.com/gallery00/gallery03-1.htm
25. http://www.jireumgil.co.kr/Ji-lessonPlan/fashion/three_3_02.htm
26. A Edward Overhaus Jr.(1997) 「Fashion Directions」, Carnegie America/Pivot Point International/Patio Hairdressing Group Seoul
27. 김희숙/이은임(1996), 메이크업과 패션, 수문사 p44
28. Hairsculpture Ladies, Pivot Point International p68
29. Hairsculpture Ladies, Pivot Point International p126
30. Hairsculpture Ladies, Pivot Point International p242
31. Toni & Guy classic cut book, Toni & Guy Hairdressing p52
32. Lesley & Phillip Hatten(1990), Foundation Hairdressing, Blackwell science p174
33. 사이리(1998), 「사이리즘」, 사이리즘출판 p140
34. Hairsculpture Ladies, Pivot Point International pp56 - 63
35. 지상기/조성태, 「Vidal Sassoon과 Toni&Guy의 커트의 기법과 특성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패션비지니스학회지 제6권 제3호(2002년 7월)
36. Vidal Sassoon(1978) 「Cutting hair the Vidal Sassoon way」, Butterworth- Heinemann pp75-87
37. 김희숙/이은임(1996), 메이크업과 패션, 수문사 p49
38. 컷트백과 1991, 도서출판 IBA p139
39. Esthetica Korea 2002 August
40. 지상기/조성태, 「Vidal Sassoon과 Toni&Guy의 커트의 기법과 특성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패션비지니스학회지 제6권 제3호(2002년 7월)
41. Hairsculpture Ladies, Pivot Point International p176
42. Toni & Guy classic cut book, Toni & Guy Hairdressing p62
43. Hairsculpture Ladies, Pivot Point International p284
44. Hairsculpture Ladies, Pivot Point International p216
45. Vidal Sassoon Contemporary hair cut」 Video Tapes
Vidal Sassoon(1992) 「Contemporary classics the Vidal Sassoon way Vol Ⅰ, Ⅱ」 Haircare Ltd.
46. Toni & Guy classic cut book, Toni & Guy Hairdressing p134

47. 2002년 런던 비달사순 뉴트렌드 작품발표 참가 촬영tape
48. Toni&Guy 2002 Trend CD-rom

Pictures Reference

高村是州 Zeshu Takamura, 1997, Roots of street style, graphics 社
그림1 p12, 그림2 p15, 그림3 p18, 그림4 p19
그림5 p21, 그림6 p23, 그림7 p24, 그림8 p29
그림9 p34, 그림10 p35, 그림12 p132, 그림13 p135
그림14 p137, 그림15 p154, 그림16 p158, 그림17 p188
그림18 p181

Ted Polhemus, 1994, Street Style, Thames and Hudson
그림11 p30, 그림92 p66, 그림99 p92

Changes of fashion silhouette, Musée de la mode et textile, 1997
실루엣그림

A Edward Overhaus Jr., 1997, Fashion Directions, Carnegie America/Pivot Point International/ Patio Hairdressing Group Seoul
그림 19

김희숙/이은임, 1996, 메이크업과 패션, 수문사
그림20 p41, 그림26 p46, 그림70 p45, 그림72 & 117 p48
그림81 p50, 그림82 p54, 그림87 p57, 그림90 p60
그림95 p62, 그림100 p62, 그림105 p99, 그림106 p64

François Baudot,1999, The Twentieth Century Fashion, Universe Publishing
그림21 p61 그림22 p54, 그림23 p65, 그림24 p71
그림28 p84, 그림29 p91, 그림33 p149, 그림34 p151
그림35 p189, 그림36 p194, 그림37 p192, 그림38 p204
그림39 p207, 그림40 p212, 그림41 p222, 그림42 p261
그림42 p242, 그림44 p244, 그림46 p267, 그림47 p257

그림48 p274, 그림51 p293, 그림52 p310, 그림53 p300
그림54 p323, 그림55 p335, 그림56 p340, 그림57 p362
그림71 p63, 그림75 p87, 그림79 p131, 그림84 p168
그림85 p141, 그림88 p208, 그림91 p188, 그림93 p209
그림94 p227, 그림97 p253, 그림98 p236, 그림101 p277
그림102 p290, 그림103 p313, 그림107 p317, 그림108 p333, 그림109 p326

David Bond, 1992, The Guinness Guide to twentieth century fashion/정현숙 역, 2000년 개정판, 20세기 패션, 경춘사,
그림25 p71, 그림30 p120, 그림31 p129, 그림32 p139
그림45 p229, 그림49 50 p268, 그림73 74 p114, 그림76 p133
그림77 78 p136, 그림83 p182, 그림86 p172, 그림96 p227, 그림118 p156

Toni & Guy, Toni & Guy classic cuts Book, Toni & Guy Hairdressing
그림60 p23, 그림68 p52, 그림110 p132, 그림111 커버,
그림122 p9, 그림124 p10

Vidal Sassoon, 1978, Cutting hair the Vidal Sassoon way, Butterworth-Heinemann
그림61 p25, 그림62 p74, 그림121 p53, 그림116 p25

Pivot Point International, Sculpture Ladies
그림63 p130, 그림65 p253, 그림66 p177

Vidal Sassoon, 1992, Contemporary classics the Vidal Sassoon way Vol II, Haircare Ltd
그림64 p29

Hairstyles only UK Aug/Sep 2001
그림67 p103

Hairflair UK Sep/Oct 2001
그림112 p79, 그림113 p84

Esthetica Korea 2002 August
그림114 p97, 그림 115&126 p221

IBA컷트백과,1991 도서출판이바
그림120 p139

ABSTRACT

In the past it was considered that the meaning of the word 'fashion' was only limited to the realm of clothes or costumes. Nowadays the meaning of fashion has enlarged its territory to include : costumes, hair styles, accessaries, bags, shoes and ornaments, which can help to express the beauty of body.
The main two big components of total fashion style go to costumes and hair styles, which has been developed in harmony from ancient time.

Recent-Times-Fashion has been started since French Revolution(1789), but for the Roots of its original one has to go back to its past.
17th century Baroque period was at European culture's climax. An extremely splendid costumes and wigs were on vogue in the aristocracy.

In Rococo period during 18th century, a very exceptional taste of costumes and hair style appeared which consisted of very refined, light and detailed lines, colors and patterns. Marie Antoinette and Madam Pompadour were representing Baroque fashion with costume and hair style.

Recent-Times-Society between French Revolution and the End of the 19th Century is classified into Neo-classicism, Romanticism(revived Bourbon dynasty), Neo-Rococoism and the End of the Century. During this times simplification of fashion started, and on account of social statue, the Silhouette of Fashion changed to those of before Revolution or to futuristic ones in modernized forms, though. Ladies' hats or bonnets were worn instead of splendorous fontanges and wigs.
The change of symbolization of crown made ladies hats appear with decorative and usual fashion factors.

After Charles Frederic Worth's first Haute Couture in 1858, many a couturier showed up organizing Syndicate of Haute Couture. It has developed for more than a century aiming the bourgeoisie and middle class

since Rococo period.
The huge Fashion Capital of Modern Times and increased needs for high fashion of middle class turned over Haute Couture into Prêt-a-Porter.

The social and political factors had great influence on the changes of hair style and fashion Silhouette. The first and second world war accelerated the Simplicity of fashion silhouette and excluded the decorativeness and pressure to human body which were unuseful. Hair style originated by hair cut has been developed. From time to time hair setting or permanent wave was added to the style.

The After-war generation became the leaders in 1960s' culture and made street style. This style was adopted to Haute Couture and Prêt-a-Porter fashion and caused the changes of design, colors and material used since 1970s' fashion. Hair style also has been developed for a good combination with the silhouette, social change, materials and colors used. In order to achieve the form, various technique of hair cut has been invented by many a famous stylist group such as Vidal Sassoon and Toni & Guy, etc.

A. Edward Overhaus Jr. , vice president of Carnegie America analyzed 100 years of the 20th century fashion by each decade silhouette using simple diagram and found each silhouette is repeated by 4 decades term. Such silhouette diagrams are repeated rectangle from 1900s, reverse triangle over rectangle, a long isosceles triangle, reverse triangle on a isosceles triangle, and exceptionally a reversed isosceles triangle in 1980s.

In many fashion books about 20th fashion containing pictures of each decades the Silhouette of Overhaus were proved. Hair style was performing its role as a part of the silhouette to encourage, or minimized in order not to disturb the silhouette. In various data of Hairstylists like classic and contemporary cut book, videotapes, CD-Rom, Journal a proper approach to each decade's representative hair cut is found.

In this study, the fact that fashion trend was repeated by 4 decades is concluded. This repeated silhouette of fashion trend is becoming thinner and longer excluding unuseful fashion elements to human body structure. Hair Cut has followed the fact above. Possible prospects for the future fashion could be made according to this study.